

2011 JAN-FEB Vol.85 01-02

Smart choice Best care!

# 인하대병원

## JUMP! 2011



# JCI

“2011 세계로 도약하는 인천의 중심병원  
최첨단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





2011. 01+02

# CONTENTS

Jan. Feb Vol. 85

04	신년사	2014년 Top 7 병원을 이루기 위해 도약하는 한해로!!
06	행복을 전하는 글	천천히 살아가는 인생의 5가지 지혜
07	Well-being Report	주거 공간 자체만으로도 건강을 주는 - 한옥
10	의학정보 1	겨울철 낙상에 의한 골절
12	의학정보 2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과 치료
15	건강책갈피	당신이 술을 마실 때 당신의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18	운동처방사의 운동법	겨울철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가정) 근력 운동
20	부서탐방	최고의 인하대병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의료정보팀
22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치매에 대한 예방, 교육, 검진, 진단, 치료비 제공까지.....
24	글이 머무는 풍경	신규간호사 와타나베 미세라 인하 나눔지기가! 고마워~~
26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	소외되고 치유되지 않는 곳에 따뜻한 빛과 사랑을...
28	희망천사 릴레이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의 즐거운 나눔
29	암! 함께 이겨내요	항암제와 탈모
30	특약약물상담	염증 반응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골다공증 위험
31	협력기관소개	사)중소기업어업중 - 인천, 부천, 김포연합회 소개
32	협력병원탐방	한아름 병원
33	개원의 휴일검진 안내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
34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파랑새 소식
38	알립니다	인사동정 /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 Global Inha 퀴즈 퀴즈 제58회 / 발전기금 / 무료공개강좌

# 2014년 Top 7 병원을 이루기 위해 도약하는 한해로!!



*Happy new year!*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하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금년 내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JCI인증과 국가 의료기관 인증평가 수검 등으로 힘든 한해였지만 한편 우리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600병상 규모의 병원 신축계획이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확정되어 국내 7위권 대형병원 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원 이후 처음으로 입원환자 일평균 800명을 넘어서는 실적과 2회의 간이식 수술에 성공한 바 있으며, 국가 프로젝트인 소화기질환 유효성 평가 서비스센터 유치와, 연구과제 수주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인하가족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병원 경영환경은 건강보험수가가 사상최저인 0.93% 인상과, 재정난을 이유로 선택 진료 및 의료전달 체계 강화 등 삼중중합병원의 경영을 압박하는 의료정책이 강화되어 추진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를 우리 인하대병원이 쌓아 온 역량과 지난 3년간 투자한 자원과 JCI기준 등 제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2014년 Top 7 병원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고자 『가치관 경영』, 『효율과 성과』를 금년도 업무 수행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우리의 꿈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병원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핵심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원하여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의력과 역발상적인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JCI인증 병원답게 환자 안전을 제일 모토로 진료의 표준화와 환자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계속 정착, 발전시켜 나가며 진료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센터는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교수 개인별 특성화 클리닉을 개발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명실상부한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체제 확립을 위해 의료진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축병원은 1월중 간담본부 조식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교감, 설득과 토론으로 고귀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첨단 시설과 선진 진료시스템의 구현으로 멋진 병원을 만들어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와 마케팅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진료와 검사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환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질환별 C·P를 계속 개발하고 각 부서에서는 진료 및 검사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병원이 인천대표 대학병원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질환을 주제로 무료강좌, 무료검진 봉사, 자선행사 등 이벤트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높이고,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011년 개원 15주년 새 병원 신축을 계기로 우리 인하대병원의 정신, 즉 가치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하려면 가치관이 병원의 중심이 되어야 마땅하며 새 병원 신축을 계기로 인하 '혼(Spirit)' 정립의 충분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하대학교의료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중장기 발전 전략과 함께 재정립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단위 성과평가제를 구축하여 부서 공동체 의식과 열심히 성과를 내는 부서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보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설교가 미국 사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높은 꿈을 갖고 실현하고자 할 때 삶의 가능성과 가치와 보람을 느낍니다. 꿈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용기가 생기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실천의지가 중요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루어 온 성과를 뛰어넘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갈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성과와 경험을 자산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영종메디칼센터의 완공, 새 병원의 신축과 더불어 자랑스러운 인하대학교의료원의 미래를 준비하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리기 때의 비행처럼 서로 협동하고 동행할 때에, 엘시스테마의 Orchestra 단원처럼 협동과 배려가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꿈은 꼭 실현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금년에는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년 내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묘년 새해아침  
의료원장 박 승 립

## 천천히 살아가는 인생의 5가지 지혜

피에르 생소 -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中

### 들을 것

“대개 듣기보다 말을 하기를 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잊는다는 것이다.  
급하게 대답하는 것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몰입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그만큼 삶은 성숙해진다.

### 권태로울 것

권태로움은 아무 것에도 애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마음으로 멀찌감치 느끼는 것이다.  
우리를 가두어 놓는 온갖 것들을  
느긋한 마음으로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며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고 만족스런 하품도 해보자.  
그러나 '권태'는 세상을 보다 성실하게 살기 위한 것이므로  
언제나 절제되어야 함을 잊지 말자.

### 기다릴 것

자유롭고 무한히 넓은 미래의 가능성이  
자신에게 열려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자.  
내가 꿈꾸는 것이 삶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조바심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면  
미래는 곧 눈앞에 활짝 펼쳐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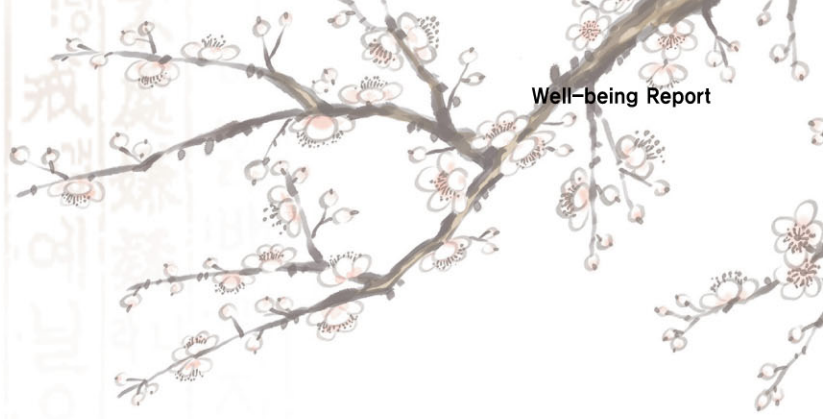
### 마음의 고향을 간직할 것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퇴색한 추억들을 떠올려 보자.  
개울에서 발가벗고 멍 감던 일.  
“낮설음에 눈물짓던 초등학교 입학식,”  
동무와 손잡고 걸던 먼지투성이 신작로...  
지나간 흔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애착을 느끼게 된다.

### 글을 쓸 것

마음속 진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금씩 마음의 소리를 글로 써 보자.  
자신의 참 모습에 가까이 다가서려면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꾸미고 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실에 귀 기울여 보자.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흙벽, 구들장, 대청마루~~

## 주거 공간 자체만으로도 건강을 주는 - 한옥

웰빙, 에코 트렌드에 따라 한옥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옥식 아파트와 병원, 카페 그리고 웰빙 여행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숙박도 인기를 얻고 있다. 에코리즘은 자연 그대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한옥이 각광받는 이유는 고풍스런 분위기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강에 좋다는 점은 단연 가장 큰 이유이다.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한옥은 과학적인 건축원리가 주는 웰빙 주거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옥은 불편하고, 낡고 허름하다, 그리고 고루하다?**

흔히 한옥은 불편하고, 낡고, 허름하고, 고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또 세련된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식생활뿐 아니라 먹고 자는 주거 공간인 집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한옥을 응용한 다양한 상업시설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한옥형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한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 으뜸인 앞마당, 이를 감싼 한옥형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다. ○○공사가 건설하는 한 아파트의 안마당형에는 나무와 풀이 있고 장독대가 놓여있다. 안마당을 통해 주방이나 세탁실, 거실로 연결되게 설계하기도 했다.

어느새 조용히 한옥은 우리 삶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고, '한옥'의 참 멋과 맛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외형만 한옥인 것은 보이는 것 외에 의미가 없다. 건강한 주거 기능의 중요한 요소는 '자연'이다. 각종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온도, 습도, 채광을 조절하고, 편안함과 오감의 교류를 느끼게 주어야 건강한 주거 공간이 된다. 또 이러한 자연요소의 충분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이 바로 '한옥'이다.



**휴, 나무, 환경 친화적, 재로운돌의 과학, 창의 아름다움**  
 여러 가지 외형적인데서 풍기는 건축학적 미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한옥이 좋은 이유는 건강에 좋기 때문일 것이다. 한옥의 구들장은 아궁이에 땀감을 때면 뜨거운 공기가 구들장 밑으로 지나면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준다. 구들장 바닥은 따뜻하고 위는 차기 때문에 두한족열의 원리를 충족시켜준다.

또한 인체는 필요에 따라 덥기도 하고 찬 맛을 보아야 혈액순환에 이롭다고 한다. 무조건 같은 온도는 인체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옥의 원리는 주거환경 때문에 생긴 현대의 많은 질병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작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한옥에 사용하는 목재는 주로 사람에게 이로운 나무 중 하나인 소나무를 사용한다. 인체에 편안하고 공기순환을 활성화하는 휴를 사용한다는 것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한옥을 숨 쉬는 집이라고 일컫는 것은 역시 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옥의 주재료인 나무, 흙, 돌은 환경오염 없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정말 한옥을 한옥답게 만드는 구들장, 흙벽, 대청마루 등은 서구식 주거문화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도리어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최근 개보수 되고 있는 한옥은 무늬만 한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형은 한옥이면서 시멘트 마당에 보일러를 깔고 입식부엌이 들어선 한옥으로 탈바꿈한다. 기와지붕만 갖춘 것은 '한옥 풍'이지 한옥이 아니다.

내부구조나 창문 등의 자재로 화학물질 마감재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오염물질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는 흔히 말하는 아파트의 새집증후군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한옥의 매력은 알지만 친환경소재이다 보니 사실 비용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어쨌든 진정한 한옥이란 빛과 친하고 바람이 잘 들고, 마당이 있어야 그 진가를 충분히 발휘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한옥에서 살림 차린, 한희 - 박화요비 커플**

'한옥'은 한때 천덕꾸러기였다. 불편하고 겨울에는 춥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건축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한옥들은 고유의 멋은 그대로 살리면서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완전

**가까운 곳에서 한옥을 만나다~~!!**

**북촌 한옥마을** -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의 문화와 서구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전통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많은 사적들과 문화재, 민속자료가 있어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이라 불리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북촌한옥마을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600년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의 전통 거주 지역이다. 거대한 두 궁궐 사이에 밀접하여 전통 한옥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많은 가지 모양의 골목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6백년 역사도시의 풍경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전통문화체험관이나 한옥음식점 등으로 활용이 되어 간접적으로나마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북촌문화센터 02-3707-8388

**남산골 한옥마을** - 1998년 4월 18일 개관한 남산골 한옥마을은 전통 한옥 5동, 전통공예전시관, 천우각 광장동, 전통정원, 타임캡슐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994년 서울 정동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완공된 타임캡슐 광장과, 남산골의 정취를 고려하여 조성된 전통정원이다.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5동을 이전 복원한 한옥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시간 4~10월 09:00 ~ 21:00 / 11~3월 09:00 ~ 20:00  
 문의 02-2266-6923

**안동 하회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안동 하회 마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민속 마을이다.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의 집성촌으로 지금도 마을주민의 70%가 류씨이다.

이용시간 하절기 09:00 ~ 19:00 / 동절기 09:00 ~ 18:00  
 마을관광안내전화 054-852-3588





변신하고 있다.

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M본부의 '우리 결혼 했어요' 에서 한희 - 박화 요비 커플이 살았던 바로 그 집이다. 바로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락고재' 인데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인간문화재 대목장인 정영인 옹이 130년 역사를 지닌 옛 진단학회를 개수한 곳으로 한옥의 기본골격은 유지하고 기와 담장, 연못, 장독대 등은 전통의 멋을 살려 리모델링 한 것이다. 또 수세식 화장실을 들여 한옥의 최대 불편(?)을 없앴다.

전통가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삼청동에서도 전통 한옥방식으로 지어진 카페를 만날 수 있다.

또 가외동에 가면 한옥치과를 만날 수도 있다. 원래 치과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일명 '한옥 치과' 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통풍이 잘 돼 치과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치료를 위해 의자에 누우면 서까래나 마당 돌이 그대로 시야에 들어와 편안함을 더한다.

한편 전국 최초의 한옥 청사라는 화제 속에 문을 연 혜화동 동사무소는 '빌딩숲의 쉼터' 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혜화동사무소는 1940년대 지은 'ㄴ'자 모양 한옥을 외관과 건물 배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를 현대식으로 개조해 2005년 12월 문을 열었다. 한옥의 전통과 동사무소의 현대적 기능을 잘 조화시켜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떠올랐으며 영화촬영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혜화동사무소는 이미 도심 속 명소로도 자리 잡고 일처리 하고 후딱 나가는 관공서가 아니라 한옥의 멋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거주만으로도 건강을 주는, 한옥

친환경 웰빙 바람은 식생활 뿐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아파트라는 편리한 주거공간에 전통한옥의 자연친화적인 장점을 결합한 한옥 스타일을 띤 아파트들도 보이고 있다. 언제나 우리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다름 아닌 '건강' 이다.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며 아마 많은 이들이 소망으로 꼽았을 것은 가족의 건강이리라.

그래서 집안에 운동 최첨단 시스템과 설비를 갖추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한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건강은 바로 예코리즘, '한옥' 은 건강한 주거공간을 충족시켰다. 자연요소가 우리신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따로 설명할 이유가 없다.

마당과 대청구조로 인한 자연통풍, 자연과의 근접성,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갖가지 자연현상의 체험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한옥이 각광을 받는 것은 아닐까? 조금은 느리지만 여유로움이 있는 살아 숨 쉬는 집, 우리의 전통 한옥을 기억하자.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 멋과 맛이 있는 이색한옥 공간

**카페 연** - 서울 종로구 삼청동은 기와지붕 아래 상들리에를 밝히고 파스타를 먹거나 나무 미루 뒤 벽난로 앞에 앉아 외풍과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오가는 행인 옆으로 슬쩍 물러나 골목 뒤에 숨어 앉은 한옥카페 '연(緣)' 이 자리하고 있다.

한가운데 마당으로 인해 공간 전체의 숨통을 뚫다. 삼청동은 작고 단단한 이 한옥 덕에 상업주의 밀물에서 작은 숨통을 뚫다.

**고당** - 정통 한옥에서 즐기는 남양주의 로스팅 카페 고당은 안채, 별채, 행랑채, 정자 등으로 구성된 88칸의 한옥 카페이다. 커피와 한옥의 경이로운 만남은 커피 향기와 함께 자연스러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한 달에 한 번 한옥마당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고당 한옥 카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색다른 체험이고 직접 로스팅 하는 수준 높은 커피 맛도 즐길 수 있다(031-576-8090).

**남취당의 한옥이야기** - 인천 강화도에 꾸민 한옥 살림 남취당이 있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게스트 하우스로 한옥체험을 하며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

참나무 장작 불 때기 체험, 황토 찜질방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차를 마시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인 소박한 다실 해운에서 다도를 즐길 수도 있다. 소나무 향기가 있는 정통 한옥에서 아궁이에 고구미를 구워가며, 한옥의 매력에 빠져보자(070-4127-3224)

## 겨울철 낙상에 의한 골절

# 골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눈 소식이 전해지며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 들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요인이 매우 많은 계절로 외출 시 눈길이나 얼음이 얼어 있는 곳, 지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하체의 근력이나 평형감각이 떨어져 있는 노령층이나 중 장년층에서 넘어지기 쉽고, 집안에서도 여름철과 달리 양말을 신고 있어 미끄러지기 쉬우며, 비교적 옷을 많이 입고 있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목욕탕 바닥의 물기 때문에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 Fracture



### 흔한 골절의 종류

겨울철 실족에 의한 골절은 손목 골절, 척추의 압박 골절, 고관절부 골절(대퇴골 경부 또는 전자간부 골절) 등이 있으며, 손목 골절은 비교적 연령이 적은 중, 장년층에서 흔하며 넘어질 때 손목을 짚으면서 발생합니다. 한편 척추 압박골절은 골다공증이 흔한 노년층에 흔하며 실족에 의하여 주저앉으면서 발생합니다. 한 번 발생하면 척추 체의 앞쪽이 주저앉으면서 등이 굽은 자세가 되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여 추가 골절의 위험이 5배나 증가합니다. 고관절부 골절이란 대퇴 근위부인 대퇴 골두, 경부, 전자부 및 전자하부에 발생하는 골절을 말합니다. 고관절부 골절은 엉덩이 부위로 넘어지면서 발생하며, 골절 발생 시 다른 골절에 비하여 사망률이 높는데 그 이유는 주로 노령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등 한두 가지 이상의 내과적 질



**문경호 교수** | 정형외과

- 전문분야 :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 진료시간 : 화(종일), 목(오전)
- 문의 : 정형외과 ☎032-890-2380

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장기간 침상 가료를 취하여야 함으로 소화 장애, 배뇨 장애, 변비 등의 합병증 외에도 탈수, 폐렴, 욕창, 보행 장애 등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 및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70세 이상의 고관절 골절 시에 6개월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약 10~20%에 달하며, 15~25%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 고관절부 골절 발생기전 2. 손목 골절 발생기전

### 골절 발생 시 처치

넘어져서 골절이 발생 하였다고 생각 될 때나 골절이 의심되는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의사나 응급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부서진 뼈 조각이 주변의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비록 가벼운 낙상에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골절 발생 시 치료방법

치료 방법은 손목 골절의 경우 골절되어 전위된 뼈를 원래의 모양대로 맞추고 석고붕대를 하거나 외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주로 척추 보조기를 착용하여 치료하나 골절의 정도가

심하거나 불안정 할 경우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골절 부위를 원래의 모양대로 맞추고 금속판이나 금속 정으로 고정하여 뼈가 붙도록 하는 방법이 원칙이나 골다공증이 심하고, 골절이 불안정하여 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공관절로 대처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 골절의 예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겨울철 낙상에 의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 근력 강화를 위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둘째 : 외출 할 때 뒷굽이 낮고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

셋째 : 외출 시 옷은 가볍고 따뜻하게 입는다.

넷째 :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여 천천히 걷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

다섯째 : 야외 활동은 기압적 실외 온도가 올라가는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한다.

여섯째 : 실내 조명을 밝게 한다.

일곱째 : 실내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하고, 욕실 및 계단 등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여덟째 : 방이나 마루 바닥에 걸려서 넘어 질 수 있는 전선, 전화선, 장난감 등의 장애물을 정리 정돈 및 제거한다.

이홉째 : 과로, 수면 부족 등 사고의 원인을 차단한다.

열째 : 골다공증의 유무를 진단 받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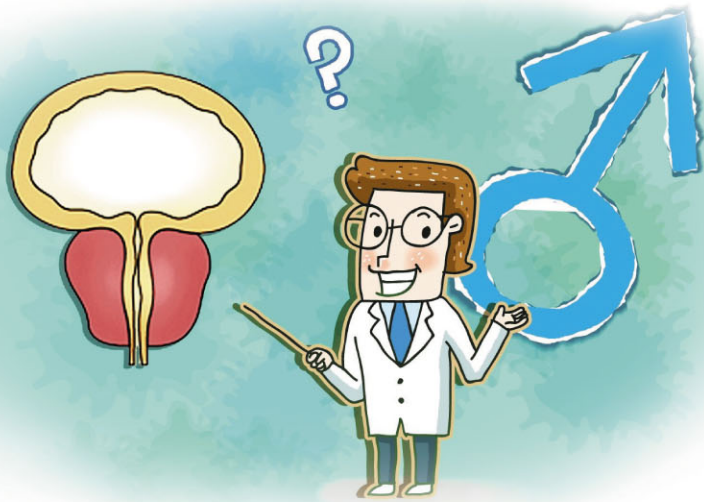
##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과 치료

# 요도는 고속도로, 전립선은 톨게이트

전립선은 남성의 요로 생식계의 교차점이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 방광의 출구에 호두알만한 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요로계에서 생식계로의 감염의 전파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전립선의 주된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변은 전립선을 통과하지 않고는 요도라고 불리는 관을 통해 우리의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없습니다. 요도를 고속도로라고 하면 전립선은 톨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톨게이트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속도로로 나갈 수 없는데, 그 문제 중 가장 흔한 질환이 전립선비대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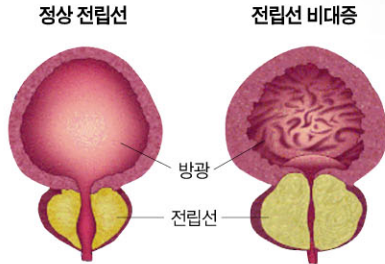
##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전립선 비대증은 대부분의 경우 중년 및 노년층 이상의 남자가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 소변보는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길어서 같이 시작했는데도 더 늦게 끝나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다가 건강 검진 등을 통해 우연히 병원에 들러서 진단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7년간 3.5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넥타이로 서서히 목이 조여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점차적인 전립선의 성장으로 요도의 내경이 좁아지게 됩니다. 일부 환자들은 그들이 인생의 반은 돈을 버는



**윤상민 교수** | 비뇨기과  
 • 전문분야 : 종양, 결석, 신이식  
 • 진료시간 : 월(종일), 목(종일)  
 • 문의 : 비뇨기과 ☎032-890-2360

데 쓰고, 나머지 반은 소변 보는데 썼다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화장실에 자주 갔다는 말입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평소보다 두세 배로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는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 전립선비대증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우선 병력청취 및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에 따라 증상 평가 및 신체검사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요검사,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암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전립선특이항원(PSA)을 측정합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의 일차적 목적은 전립선비대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닌 만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방법은?

현재 치료방법은 크게 관찰, 내과적 접근(약물치료), 외과적 접근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상이 경하여 불편하거나 고통스럽지가 않으면 특별한 의학적 처치를 하지 않고 일단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를 예의 주시하며 지켜본다”의 의미입니다.

제반 검사에서 전립선비대증의 진단되고 환자가 비대증으로 인한 중등도 이상의 증상으로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 내과적 접근(약물치료)을 시작합니다.

증상이 매우 심하거나 내과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남성들

은 여러 가지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이 수술은 경막외 마취나 전신마취 등이 필요하므로 입원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후 일정기간 요도 내에 관을 넣어두어야 하며 수술 중 출혈이 일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합병증이 있을 수 있듯이 이 수술 역시 역행성사정 등의 합병증에 대해 수술전 충분한 상의후 시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기존의 수술적인 치료방법에 비해 비교적 부담 없이 시행 받을 수 있는 여러 치료방법들이 등장하였고 그 중 레이저 치료는 중소 병원 및 큰 대학병원에서 경험하기를, 치료 효과 및 부작용 부문에서 성적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기존의 치료 방법들은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줄 뿐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즉 100% 치료가 되기 어렵고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요.

위와 같은 문제로 전립선 비대증에서의 레이저 치료가 시작되어 1세대를 거쳐, 다양한 레이저가 전립선비대증의 치료에 도입되어 왔고 그 중 2세대 KIP레이저를 이용한 수술과 3세대 홀렙:HoLEP(holmium enucleation of prostate)은 현재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그 유효성도 인정받고 있는 치료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역시 치료할 수 있는 전립선크기의 제한이 있고, 초기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상 수술자가 숙련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 RevoLix

## 전립선 비대증 치료기 레볼릭스(RevoLix)

레볼릭스(RevoLix)는 전 세계가 인정한 전립선 질환 치료기로 시술이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다. 또한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출혈 등의 부작용이 없으며 시술과 동시에 전립선암도 진단 가능한 최신형 모델이다.

걸리며, 수술 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방광 내에 분쇄기를 넣어서 전립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는 합병증의 위험 등으로 인해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하대병원에 도입한 4세대 레볼릭스(RevoLix)레이저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하였으며 전립선조직의 기화(vaporization)와 절제(resection)가 동시에 일어나 거대전립선도 치료가 가능하면서 절제된 전립선 조직을 방광 내에서 분쇄하는 과정 없이 수술을 하게 하여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을 낮추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의 특성상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떨어져 나오는 전립선 조각을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어 조직 분쇄절차가 필요치 않아 방광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기화작용만 있는 2세대 KIP 레이저와 달리 조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거된 전립선 조직의 조직검사가 가능하며, 수술 중 출혈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 동반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서조차 비교적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대다수의 남성이 걸릴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이것은 암은 아니지만 진행되는 병이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레이저와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효과적인 치료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부담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 | 문항

1. 평소 소변 볼 때 다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있는 것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2. 평소 소변을 보고 난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3. 평소 소변을 볼 때 소변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4. 평소 소변을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5. 평소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6. 평소 소변을 볼 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7. 평소 잠을 자다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룻밤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 | 점수

- 0점 : 전혀 없다
- 1점 : 5회 중 1회 이하
- 2점 : 2회 중 1회 이하
- 3점 : 절반 정도
- 4점 : 절반 이상
- 5점 : 거의 항상

### | 점수에 따른 자가 점검 (7개 문항의 합)

- 0점 : 증상이 없음
- 1~7점 : 증상이 경미함
- 8~19점 : 중등도 증상 있음 -> 비뇨기과 진료 권장함
- 20점 이상 : 심한 증상 있음 -> 신속한 비뇨기과적 치료 필요함

사회적인 모임을 갖거나, 친구와의 만남 또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많다. 이러다 보면 과음을 하게 되어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튿날 후회하기도 하고, 드물지만 비극적인 사고로도 이어지는 수가 있다. 과연 술을 마시면 우리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금요일 저녁, 한 주일의 끝, 외출하여 몇 잔의 술을 마시고, 결국 도를 지나쳤다. 토요일 오후가 되었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불쾌한 기분이다. 6시간에 걸쳐 술을 마셨을 경우 당신의 몸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마셨는가, 그리고 알코올에 대한 당신 몸의 내성(tolerance)에 달려 있다.

### 음주 후 첫 몇 시간

술을 마시면 곧 나타나는 영향이 중추신경계증상이다. 정상 상황에서 중추신경계는 눈과 귀 같은 기관으로부터 감각적 정보를 받고 이를 분석하고 그리고 근육을 수축하는 것 따위로 적절히 반응한다.

그러나 취하면 이러한 정상과정을 방해하여 균형감각이 교란되고 말이 느려지며

## 당신이 술을 마실 때 당신의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김순기교수 | 소아청소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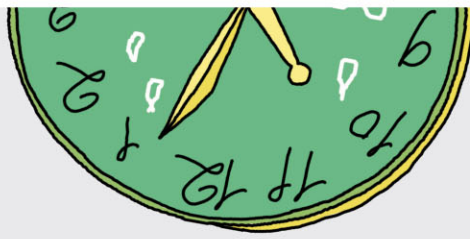


시력이 떨어지고 땀이 많아지고 통증에 둔감해진다. 술은 역시 두뇌의 바깥 층인 전두엽의 피질(frontal cortex)에 영향을 미친다. 전두엽은 의식적인 생각에 관여하는 기관으로써, 취하면 사람들이 억제된 감정을 상실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알코올은 커피처럼 이노제로 작용하는데, 신체의 항이노 호르몬의 생산을 멈추게 하여, 소변량이 많아지고 신체의 수분 손실을 크게 하여 탈수에 이르게 한다. 두통, 어지러움, 갈증, 창백, 떨림 같은 숙취의 증상은 탈수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알코올은 몸의 균형과 협동(coordination)을 조절하는 소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술을 많이 마시면 거리와 높이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어지럽게 된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여 제거하는 주요 기관으로, 알코올의 90%가 간에서 분해되고, 10%만이 소변이나 호흡을 통해 배출된다. 간은 알코올을 1시간당 1-2단위의 속도로 분

해한다. 알코올의 1단위는 맥주 한 글라스(250-300 mL 정도)의 양이고, 독한 술 한 잔(25 mL) 또는 백포도주 125 mL 또는 소주 두 잔에 해당된다. 알코올은 분해되어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로 되고, 이것은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에 의해 아세트 산으로 분해되어 배출된다. 술이 잘 안받는 사람은 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의 부족 때문이다. 약간의 알코올만 들어가도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알코올 역시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술을 마시면 평소 잘 지켜지던 다이어트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수도 있다. 500 mL 맥주(4%)를 마시면 20 g의 알코올을 섭취하고 칼로리로 계산하면  $20 \times 7 = 140$  칼로리에 해당된다. 알코올 농도가 20%인 2홉들(360 mL)이 소주 한 병은 500 칼로리를 갖고 있다. 소주 반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기름진 고기 안주를 곁들







이런 지나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

술을 마실 때 흡수되는 다량의 포도당에 반응하여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저혈당이 초래되며, 이 저혈당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빠지고, 땀이 많이 나며, 어지럽고, 사물이 흐려 보이며,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무력감과 피로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체는 탄수화물을 요구하고 이것이 음주 후에 공복감을 느끼는 이유인 것이다. 늦게 귀가하여 출출한 배를 라면으로 달래는 경우, 약 500 칼로리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 음주 후 몇 시간 뒤

음주 후 푹 고꾸라져 잠이 들지만, 음주 후 수면의 질은 탈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의 리듬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음주자가 푹 잠이 든 것 같지만, 우리 몸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깊은 잠을 못 자는 것이다. 잠에서 깬 후에도 여전히 피곤하다. 알코올은 목구멍에 있는 인두 근육(pharyngeal muscles)을 이완시켜 쉽게 코를 골게 한다.

### 음주 후 다음날

간은 여전히 알코올을 분해하고 음주 측정 테스트(breath analyser test)에 여전히 양성반응을 보일 수 있다. 알코올은 위를 자극하여 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종종 구역질과 구토를 일으킨다. 알코올은 식도에도 염증을 일으켜, 가슴속이 쓰리다(heartburn).

알코올은 염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대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알코올이 수분 흡수를 방해하여 설사 증상을 일으킨다. 알코올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소모시킨다. 혈중 칼륨, 칼슘과 나트륨 농도를 흔들어 놓는데, 칼륨이 감소함으로써, 갈

증, 근육통증, 어지러움, 실신을 초래한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한다. 알코올이 이노제로 작용함으로써, 간은 대사에 필요한 물을 두뇌를 포함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끌어다 쓰고, 이것이 옥실파는 두통을 야기한다.

알코올은 유독할뿐만 아니라 간이 알코올의 분해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보다 많은 독소를 생산한다. 간에서 생산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간 자체, 두뇌와 위벽에 독성 작용을 나타내어 두통, 구역질, 구토 및 속쓰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이런 물질을 제거하는 효소를 생산하지만,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량의 음주 결과, 이런 독성물질이 몸에 축적되고 다음날 아침에 몸 상태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술잔을 돌리고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풍습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스스로 따라먹는다는지 상대방이 그만 마시겠다고 하면, 더 이상 권하지 않으면 좋으려면, 자꾸 잔을 돌리면서 대작하도록 하는 술자리가 문제인 것이다. 이에는 세종대왕의 주법이 좋지 않을까 한다. 술에 취해 서연에서 해야 할 강의를 빼먹은 윤희에게 말씀하셨다. “경이 술을 마시어 도를 지나치는 일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고, 내가 경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신이 임금의 명령에 대하여는 물이나 불속을 들어가라 하여도 오히려 피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그 밖의 일에서야. 자기의 주량을 생각하여 한두 잔 마시든지 반잔쯤 마신다면 그렇게 정신이 없고 체면을 잃게 까지야 되겠는가. 이제부터는 부디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 따르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술을 3잔으로 제한한 중국의 예를 드는데, 아마도 이러한 3잔의 원칙이면 실수도 하지 않고,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유지하는 적당한 선이 아닐까 한다.

## 겨울철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가정) 근력 운동

글 · 김치중 운동처방사 | 비만센터


어느 계절보다 추운 겨울철에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눈으로 인한 미끄러운 도로, 추위로 인한 움츠림, 겨울철 스포츠(스키, 보드 등) 참여 등으로 인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주된 골절 부위로는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부(대퇴) 골절, 손목 골절이 있으며 특히나 고관절 부(대퇴) 골절로 인한 합병증은 생각보다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낙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골절이 흔하게 일어나는 부위의 체중을 지지 혹은 이용하여 뼈를 자극하여 골밀도를 증가 혹은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싸고 있는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실외보다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신체활동량은 줄어들게 되지만 이 시기에 실내에서 근육을 강화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이번 호에는 낙상 혹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실내(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하고 대표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Muscular Strength

운동 방법의 중점 사항은 4가지이며 하체 강화(특히 허벅지 주위), 허리 주변 강화(허리 펴기), 상체 강화, 평형성(균형 감각 신경 자극)이다.

■ 하체 근력 운동

<p><b>앉았다 일어나기 (의자 이용)</b></p>  <p>저강도 15-30회 반복 2-3세트 실시</p>	<p><b>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의자, 벽 이용)</b></p>  <p>저강도 20회 반복 2-3세트 실시</p>	<p><b>앉았다 일어나기 (벽, 공 이용)</b></p>  <p>중강도 10-20회 반복 2-3세트 실시</p>	<p><b>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한발씩)</b></p>  <p>중강도 10-12회 반복 2-3세트 실시</p>
--	--	--	--


■ 허리 근력 운동(허리 펴기 중점)

<p><b>허리 들어 올렸다 내리기</b></p>  <p>엉덩이→허리→등 순으로 들어 올리고 역순으로 내림(천천히) 10회 반복 2-3세트 실시</p>	<p><b>반대편 팔과 다리 교차하여 들었다 내리기</b></p>  <p>1) 왼손과 오른발 2) 오른손과 왼발 각각 10회 반복 2-3세트 실시</p>	<p><b>팔굽혀 펴기 (벽, 책상, 매트 이용)</b></p>  <p>10-20회 반복 2-3세트 실시</p>	<p><b>팔꿈치 구부렸다 펴기 (아령, 페트병 이용)</b></p>  <p>15-30회 반복 2-3세트 실시</p>
--	---	--	---

■ 상체 근력 운동

■ 균형 감각 자극 운동

**한 발로 서기 (손잡이, 베게 이용)**



30-60초 버티기  
5-10회 반복

**근력 운동 방법 시 주의사항**

- 반동을 주지 말고 천천히 실시하도록 한다.
- 호흡은 참지 말아야 한다(1회 당 호흡 실시, 고혈압 환자는 힘쓸 때 내쉬는 게 좋다).
- 운동하는 부위를 알고 하자(운동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끼면서 실시).
- 내 체력에 맞게 운동 강도 및 반복횟수를 조절하도록 하자.
- 2 - 3/주 (격일) 실시한다.
- 운동 도구(밴드, 짐볼, 아령 등)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 운동 전과 후 스트레칭을 실시하자(부상 예방 및 근피로 회복에 좋다).

☎ 문의 : 비만센터 | 032-890-3360

# 최고의 인하대병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의료정보팀

병원의 의료정보팀은 의사, 간호사, 진료지원부서, 행정부서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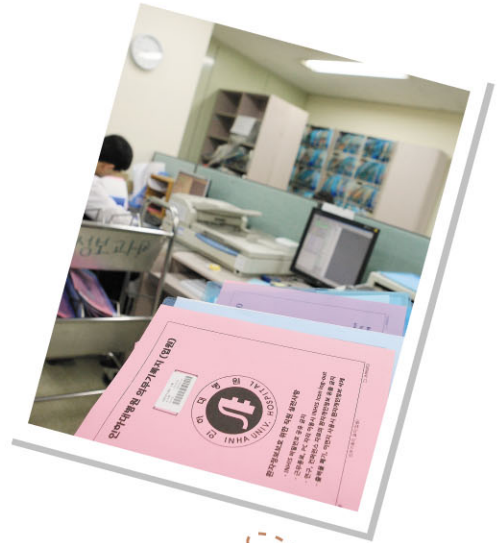
의료정보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변화 혁신으로 거듭나고 있는 의료정보팀,

정보 보안을 위해서 오후 4시 ~ 5시30분까지만 문이 열리는 의료정보팀,

살짝 그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글 · 성지영 선임의무기록사 | 의료정보팀



의료정보팀은 강한 리더쉽과 직원들의 능력을 이끌어 주시는 이연숙 팀장, 직원들을 잘 배려해 주시는 이선옥 파트장의 지휘로 의무기록파트, 전산지원파트, 영상저장파트, 인천지역 암 등록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트는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며 최고의 인하대병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의료정보팀 중장기전략은 '퇴원 후 미비기록 관리에서 재원미비 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연구 및 경영분석 활용 자료의 체계적 지원, 의무기록사별 정량적 실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검토와 시행' 입니다.



**경상도아가씨 정민주 과장을 중심으로 5명의 아이**  
디어 우먼 의무기록사는 진료정보관리, 코드관리, 서식관리, 진료 통계생성, 자료제공, 보건지표관리를 합니다. 진료정보관리 중 퇴원분석과 미비관리는 정확한 질병분류, 정질정량분석으로 모든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의 눈 같은 미비분석으로 가끔 의사들의 원성도 받지만 교수님과 전공의 의 협조와 상호관계로 미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제6 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로 코드가 upgrade 돼서 질병명이 더 세분화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록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 또한 모든 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정확한 진료통계생성과 의료진, 행정부서에게 연구자료 및 경영분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SPSS통계 패키지가 의료정보팀에만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만큼 의료정보팀은 통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연간 원내, 원외 자료제공만 무려 890건입니다. 놀라셨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염병신고, 표본감시질환보고, 임부 및 사산아보고, 퇴원순상환자조사 등 국가보건정책에 크게 기여하여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전산지원파트

**최고의 두뇌 이연숙 팀장**

**을 중심으로** 장복실 과장, 최은숙 대리  
의 환상적인 콤비는 우리병원의 모든 전산은  
내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HIST(한진  
정보통신)와 우리나라 최고의 EMR 환경을 개발  
하며 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물쇠처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손 김미영 선생**

**님을 중심으로** 4명의 선생님들은 손이  
스치는 곳마다 실시간으로 차트가 보이며, 쉬지  
않고 scan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상저장파트는 No  
chart 일환으로 active chart 100% 스캔 목표를 가지고 5  
명의 직원들이 검사 속지와 퇴원 차트를 당일 신속하  
게 이미지 스캔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일준, 김  
중원 선생님은 우리 과에 힘든 일들을 술선수  
범하는 멋쟁이들이십니다.

영상저장파트



뒷줄 왼쪽부터 최은숙, 정민주, 김민향, 박수정, 김미영, 이현영, 이일준, 최중원  
앞줄 왼쪽부터 한은정, 김미경, 이연숙, 한은영, 이선옥, 설지영, 장복실, 김미현

의료정보팀은 정확하고 전문화된 부서로서 2007년도 의료기관평가에서  
전 분야 A 등급을 받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2010년도 JCI 인증, 국내 의  
료기관평가 인증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서는 항상 직원들의 개인역량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실력 발휘 할 기회가 적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도의 미션은 “의료정보팀의 모든 것을 보여주자”  
입니다. (ㅋㅋ)

우리 의료정보팀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2011년 팀 구성원들  
의 계획이 성취되어 인하대병원의 비전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  
려가겠습니다.

**세심한 인천지역 암 등록부**

**장 이선옥 파트장은** 젠맨방사선종

양학과 김우철 본부장, 모델 같은 이현영 연구  
원과 함께 인천지역 암센터 유치에 위해 타병원과  
경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암등록본부  
에서는 중앙 암 등록본부에 인천 지역 암환자 자료  
를 보내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의 암 지표에 큰 기여와 의료의 질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암 등록본부

# 치매에 대한 예방, 교육, 검진, 진단, 치료비 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글 · 박경희 팀장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 선생님! 우리 유급시켜 줘요. 더 다니고 싶어요.  
어르신! 성적이 너무 좋아서 유급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의 장난 섞인 말씀이시다. 10주 동안 메타기억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함께한 동료들과의 헤어짐이 서운하고, 무료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심이 걱정이 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더 이상 못하게 됨을 무척이나 아쉬워하면서 직원들과의 인타까움을 이야기 하셨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일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사회에서 밀려나게 되고,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점차 소외계층으로 멀어지게 된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 중에서도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치매’ 라는 질환이다. 치매는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치매’ 라는 질병을 노인에게 걸리는 질병으로 치부하고 치료에 소홀이 대해온 건이 사실이고, 계속 지금 같이 방치하다보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센터장 배재남|인하대병원 정신과 과장)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정신과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남구청과 업무 위탁을 체결하여 남구 주민을 위해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하고 있다.

2010년 2월 11일에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를 모시고 개소식을 하였고 벌써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배재남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팀장 1명,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행정업무 1명으로 모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지원 인력으로는 전문의 1명과 상담심리사 1명이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경희 팀장, 이정미, 윤선애, 서정은, 정승연, 차경진, 이영아 팀원



센터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누구나 무료로 치매선별 검진에 참여하시도록 유도하여 조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치매선별검진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통하여 치매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로 진단될 경우 인하대병원에서 혈액검사와 뇌영상 촬영을 하게 되며 이러한 치매진단에 대한 모든 절차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이나 치매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드시는 분에게는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치매검진사업을 통하여 치매노인, 인지저하, 고위험군, 정상 어르신을 관리하면서 어르신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인지건강센터에서는 치매고위험군과 인지저하군에 대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복지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계시는 고혈압, 당뇨병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조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치매환자가 많아,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치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를 조기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의 중심에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 문의 :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 032-876-4310 / 4320





## 신규간호사 와타나베 미세라

글 · 와타나베 미세라 | 병동간호2팀 (동9병동)

저는 간호사로서 헌신하며 인하대병원의 숨은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탁월함과 카리스마로 대변되었던 기존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아지는 서번트 리더로서 환자를 사랑하는 간호사로 성장하여 인하대병원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 탁월함은 모든 편견을 뛰어 넘는다

‘와타나베 미세라, 일본이름을 가지고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에게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제 이름에 대한 주위의 시선이 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은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어릴 때는 ‘뭔가 특별한 것이다’라는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편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때문에 저의 어린 시절 좌우명을 ‘탁월함은 모든 편견을 뛰어 넘는다’로 두고 무엇을 하든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최선을 다하되 저의 한계를 알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닌 후회 없는 삶을 목표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배웠고 종교를 통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비전으로 세웠으며 저의 약함과 낮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규간호사로 동9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금의 저의 모습 또한 한 없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은 성장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고 변화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경험이고 꿈을 향한 준비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하대병원, 꿈이 있는 우리의 가능성

인천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인하대병원은 익숙하고 가장 먼저 떠오

르는 병원입니다. 고 3때 기흉으로 인하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 선생님의 애정어린 간호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제가 간호사의 꿈을 새롭게 키우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디자이너, 사진작가, 음악가 등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음악, 미술 등 그 수단의 차이가 있을 뿐 세 삶의 궁극적 목표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 받는 환자과 가장 가까운 전문 의료인, 간호사.’ 저는 인하대 병원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는’ 간호사에 대한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 servant leadership

저는 간호사로서 헌신하며 인하대병원의 숨은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탁월함과 카리스마로 대변되었던 기존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아지는 서번트 리더로서 환자를 사랑하는 간호사로 성장하여 인하대병원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며 섬길 줄 아는 사람,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관계에서 먼저 다가감으로써 타인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섬기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0°C부터 99°C까지는 끓게 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1°C만 더해져도 물은 끓기 시작합니다. 인하대 병원에서 마지막 1°C의 사람이 되어 가능성을 현실화 시키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 인하 나눔지기야! 고마워~~

글 · 송민음

저는 1997년, 1형 당뇨병을 판정받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처음 당뇨병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 병이 평생 같이 가야 할 질병이라는 정도밖에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학업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젊음 하나만 믿고 몸을 많이 혹사시킨 결과가 당뇨병이라는 진단으로 나오니 인생 자체에 많은 회의와 절망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어교사가 되고자 하는 미래의 꿈이 있었기에 매일 아침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도 대학원 공부를 했고,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긴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1996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어머니 역시 6명의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아팠지만, 재 앞길은 제가 스스로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교사자격증도 취득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서 정교사로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에 당뇨병 관리의 뒷전으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고, 당화혈색소(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는 8~9%까지 올라가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인슐린 주사로는 혈당조절이 안 되니 인슐린 펌프를 달자고 하셨고, 그것도 항상 바늘을 꽂고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몇 년을 고민하다, 2004년도에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펌프는 기초 인슐린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이 있었고, 수업 도중 몇 번의 저혈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수업을 지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현재까지 당뇨병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저혈당에 빠져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운이 쭉 빠져서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자 주

의 선생님께서 한 번 입원을 하여 다시 한 번 인슐린 투입 양을 체크하자고 제의하셨지만, 그동안 저축해놓은 것도 5년간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다 사용해서 또 다시 입원을 한다는 것은 제게는 많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혈당 쇼크사도 있는 등 많은 위험한 요인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2010년 11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니 저혈당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원무과에 가서 중간진료비를 알아보면서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진료지원팀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원규주 사회복지사님과 상담을 했고, 가족이 아닌 친구가 지금 현재까지 돌보고 있다는 여러 사정을 들으신 후 '인하 나눔지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기금은 인하대병원 교직원 분들과 그 이외 많은 분들이 기부하신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고, 또 그것을 지원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에 지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에 눈물을 흘렸고, 또 감격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지원해주시는 그 기금이 절망하여 낙심하고 있는 저와 같은 많은 환우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심신이 약해져있는 이들에게도 긍정적이며, 아직은 그래도 세상이 살 만한 곳이라는 기쁨과 따뜻함을 전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인하대병원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기부해주신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금에 동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소외계층들에게 희망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라며, 저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작지만 제 힘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까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인하대병원의 큰 발전을 바라며, '인하 나눔지기기금'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하 나눔지기기금은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을 지켜준다는 뜻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 기부 및 지원 문의 :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사회복지파트 890-2870, 2876

- 후원계좌 : 하나은행 748-910002-35204 예금주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구촌 한 가족 캠페인이 올해에도 시행되었다.

이번 2010년 인하대병원 사회공헌활동의 마무리로 2010년 12월 한 달간 진행되었다.

기존 2년간의 지구촌 한 가족 캠페인이 다문화 가정을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월 본원이 시행한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사와 연계하여 우즈베키스탄 보건복지부, 우즈베키스탄 비영리 복지재단인 우촌재단과 함께 진행하였다.

대상자 선발에 있어,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사 시 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 사정이 어렵고 현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치료를 하면 나올 수 있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 중에서도 4명을 선정하였다. 4명 중 선정되었던 한 살짜리 남아아기는 종교적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여, 안타깝게 됐지만 최종적으로 3명이 이 캠페인의 대상자가 되었다.

선택받은 3명의 환자는 김베라(82세, 백내장), 헤이다로바(18세, 심방중격결손증), 딜바(43세,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이다.



소외되고 치유되지 않는 곳에  
따뜻한 빛과 사랑을...





### 밝아진 눈에 한국을 담고 가신 김베라 할머니

김베라 할머니는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 고려인으로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하셨다고 한다.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운영하고 있는 고려인을 위한 아리랑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분으로 같은 한민족으로써, 이번 캠페인을 더욱 뜻깊게 해주신 분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른쪽 눈을 수술을 하셨다가 이미 시력이 없는 실명상태이고, 나머지 보이는 왼쪽 눈마저 백내장이 생기셨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할뿐더러, 남은 눈마저 안보이게 될까봐 계속 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으셨다고 한다. 의료봉사 시 안과 진희승 교수님께서 이런 사정을 들으시고는 김베라 할머니를 캠페인 첫 번째 대상자로 선정하셨다. 막상 이 캠페인의 대상자가 되셨을 때,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할머니를 만류했지만, 할머니께서 오히려 고국에서, 한국인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시며 적극 한국행을 원하셔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났는 한국땅에 도착해서도, 남은 한쪽 눈의 백내장 정도가 심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셔서 한국이 어떤지 감흥이 없으셨는데, 수술 후, 깨끗한 눈으로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며 새삼 감격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 새 생명을 불어 넣어준 인하대병원이,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헤이다로바 양

두 번째 대상자로 선정된 헤이다로바 양은 심방중격결손증(양 심방 사이의 중간 벽에 구멍이 뚫려있는 증상)으로 간호학을 공부하다 중세가 심해져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집안사정이 어려워 수술은 생각할 수도 없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이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상태였다. 헤이다로바가 살고 있는 나보이 지역은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없고, 의료봉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 지역으로 인하대병원의 의료봉사가 유사이래 최초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료를 받은 것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오게 되어 헤이다로바양은 인하대병원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헤이다로바의 병을 진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신 심장내과 김대혁 교수님과 수술을 집도하신 흉부외과 백완기 교수님께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특히 수술집도의이신 백완기 교수님은 헤이다로바가 아가씨임을 감안해, 심장수술은 양 가슴의 중간을 절개하여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흉터걱정을 하는 환자를 위해 왼쪽 가슴 바로 아랫부분을 절개하는 어려운 수술 방법을 택하여 걱정을 해소시켜 주셨다. 헤이다로바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본인도 이렇게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각오를 다지고 귀국했다.

### 건강해진 두 다리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달바님

마지막 대상자는 달바님으로 젊으신 편인데도, 고관절이 손상되어 제대로 걸질 못하는 상태였다. 평소 걸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걸을걸이가 정상적이지 않아 외부에 나가는 것도 기피하셔서 집에서만 지내다시피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두말하지 않고 제대로 걷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한국에 오셨다. 그 때문인지 수술 후 통증이 있었을 텐데도 항상 밝으셨던 분이다. 정형외과 강준순 교수님으로부터 고관절전치환술을 받고 재활치료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모두 병원에서 보내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웃으시며 재활치료를 받으셨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족들과 꼭 행복하게 가족여행을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1개월간 세 환자분과 동고동락하며, 언어문제와 문화의 차이로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 인천국제교류센터의 지원해주신, 한국으로 시집 온 우즈베키스탄 통역 노가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여 가족처럼 환자들을 돌봐주고 통역을 해주었으나, 노가 없으면 의료진이 모두 손짓, 발짓을 해가며 말을 전해야 했다. 환자들도 물론 손짓, 발짓을 했던 것은 물론이다. 이 지면을 빌어 이번 캠페인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 안사회봉사단과 성공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신 안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의료진들과 특히 3명의 환자를 모두 돌보시느라 고생하신 서9병동 주간호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간호사 선생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캠페인 비용을 후원해주신 지구마을 복지회와 본원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신 전 인하대병원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글 · 김필립 | 홍보팀



## 기호일보 사장 한창원의 즐거운 나눔

“봉사란 게 저와 딱 맞는 거예요. 그 자체로 즐겁고 행복해지거든요. 직장생활이 힘들면 점심을 먹으러 ‘향진원’에 달려갈 정도였어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니까요.”

사회지도층인사의 불우이웃돕기! 연출일까? 진정성일까? 이것이 아름다운 사연이 되려면, 힘들 때 맘을 뉘어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어야 한다. 그만큼 진정성이 따라야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실현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 가난을 딛고, 지역 언론의 최고 경영자로 우뚝 선, 기호일보의 대표이사 한창원 씨. 경인일보 선정 ‘인천파워 오피니언리더 115인’에서 언론인 분야 5위로 랭크된 그는 지난 25년간을 한결같이, 불우한 아동들의 교육과 재활을 위한 후원사업에 매진해

왔다.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그의 진정성과 성실함은 더욱 빛을 발한다. 가난때문에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사로 마치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그에게, ‘야학’이란 배움의 공간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희망이었고, 야학선생님은 그의 롤모델이었다. 대학 졸업 후 “나와 같은 불우한 아이들이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

으로 1983년 경(그의 나이 24세)부터 부평에서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한 입시 야학을 시작했다. 아동복지시설 ‘향진원’의 인우야학과 인연이 된 후로는 외부의 후원도 없이, 대학생들과 함께 직접 야학교실을 운영했다. 이 교육사업은 어느덧 31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아동시설 ‘향진원’에서 퇴소하는 19세 이상 원생들에게 한 사람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 퇴소후 원생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니 향진원 후원 회장을 12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다며 수줍은 웃음을 짓는다. 지적지체장애인시설 ‘예림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외출프로젝트를 입안해서 20년째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마음 졸이고 가슴이 서늘해지는 사건, 사고들도 많았지만 정작 한창원 씨가 이 일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한 것은,

주위의 몇몇 왜곡된 시선때문이었다. 2000년 사회봉사상(문화부장관상)을 수상했을 때, 함께 후원사업을 하던 주변에서 ‘상 타려고 봉사한거냐’라며 수상을 거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 때문에 6개월여간 가슴앓이를 했다. 그럼에도 2010년 5월에는 22년의 향진원 후원 공로를 인정받아 다시 사회봉사상(대통령 표창)이 주어졌다. 이번에는 주위에서도 그의 진정성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셔서 한시름을 놓았지만, 아직도 어디선가 상을 준다

고 하면 노이로제 증상이 나온다고...(웃음).

“사랑은 아무리 퍼주어도 더 줄게 없어서 애 태우는 것’인데, 가족이 있다보니 다 줄수는 없더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20여년의 세월

을 묵묵히 지켜온 진정성을 엿보게 된다. 선행(善行)을 지속적으로,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주위를 행복하게 해준다. 더불어 우리도 행복한 마음으로 그런 선행을 칭송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 사회복지시설 향진원 행사에서



▲ 향진원 인우회(야학교사단체)의 소식지 「인우소리」 13년치를 묶은 낱은 자료집 중에서 (위쪽이 한창원 씨, 아래는 자폐증아동).

▶ 향진원의 아이들과 함께

항암제와 탈모

# “머리 안 빠지는 항암제로 맞고 싶어요”

글 · 유미애 팀장 | 암진료상담실



# HAIR LOSS

최근 암환자의 증가로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며 그에 따라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어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오심과 구토, 식욕부진, 피부변화, 탈모, 무력감 등의 신체적 불편감과 우울, 두려움 등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항암요법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로서 탈모는 매력과 개성의 손실, 수치, 아픔, 죽음과 관련되며 탈모를 경험한 여성들은 낮은 자존감과 신체상 삶의 질이 낮아짐을 느낀다.

본원의 많은 여성 환자들도 “머리 안 빠지는 항암제로 맞고 싶어요” 등으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은 1차 항암제 치료 후 완전 탈모 경험으로 “수술할 땐 안 울었는데 머리카락 빠지는 것보고는 울었어요”라며 탈모로 인한 충격과 비애감을 호소한다.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탈모는 특정한 항암화학약제에 의해 줄기세포(Stem cell)의 DNA를 손상시키고 모낭의 위축을 초래하여 두피에서 부서지거나 두부의 표면에서 박리, 유리되어 탈모가 일어난다. 모든 항암제가 탈모를 유발하지는 않으며 탈모를 유발하는 항암제로는 Doxorubicine, Epirubicine, Genexol, Taxol, Padexol, Campto, Taxotere, 5FU, Gemza 등이 있다.

탈모를 줄이기 위한 많은 예방법들로는 두피 냉요법(ice cap), 압박법, 투약 등이 있으며 두피 냉요법은 모발로 가는 혈류를 줄임으로써 혈관수축이 모낭세포의 항암제 흡수를 줄이는 효과와 생화학적인 활동을 줄여 모낭세포의 활동을 감소하여 탈모를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고 사용에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탈모는 항암제 사용 14일부터 진행되고 마지막 항암제 사용 후 1개월부터 다시 나며 3개월 후에는 모자나 가발 없이 지낼 수 있게 된다.

이에 인하대병원 암진료 상담실에서는 “암환자 따뜻한 겨울나기”라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어려운 항암제 치료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암환자에게 힘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많은 병원직원들이 기부와 털모자 뜨기 봉사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행사로 이어갈 계획이다.

☎ 문의 : 암진료 상담실 032-890-3638

# Q&A

## 염증 반응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골다공증 위험

**Q:** 5년전 고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한 환자는 또 다치기 쉽다던데 칼슘약을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A:** 뼈는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재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연스런 뼈의 재건 작용이 손상되어 과도한 뼈의 손실이 생기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골절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고령의 환자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행동의 제약이 크므로 큰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뼈를 보다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면 고관절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폐경 후의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칼슘과 비타민 D 복용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의사 선생님과 여성 호르몬 치료 여부를 상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무게를 지탱하는 운동(걷기, 가벼운 조깅 등)은 뼈 생성과 근육량 개선에도 도움이 되므로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하도록 권장됩니다.

**Q:** 류마티스 약은 뼈가 약해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골다공증이 생기는 위험 요인은 다양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양의 감소로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 또한 골다공증의 주요한 원인이며, 흡연, 당뇨, 골다공증가족력도 뼈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보통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corticosteroids)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Corticosteroids 이외에도 항암 치료제, 간질 치료제, 제산제 등도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 골다공증 또는 골절이 염려 된다고 하여 치료 약물을 환자가 임의로 조절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BMD (bone mineral density) 측정 등을 통해 골다공증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하고 적절한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 사)중소기업이업종 - 인천, 부천, 김포연합회 소개

# 업종이 다른기업이 모여 활동하는 순수 민간 경제단체



서달문 |  
중소기업이업종 인천부천김포연합회 회장

이업종연합회는 업종이 다른 기업들이 서로 모여, 각사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공개하고 전문기술, 판매력 등 경영·기술자원을 교류·교환하여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 기업 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든 사단법인 민간단체이다. 연합회는 94년5월 6개 교류회 70회원으로 창립, 현재 33개 교류회 812명의 회원사가 등록 활동하고 있다.

연합회 주요사업으로는 매년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정책설명회를 개최, 중소기업 지원정책 사업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하여, 연간 계획사업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신속한 정보 획득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업종교류 활동의 근본 목적인 중소기업 이업종 간 지식·기술융합으로 창출된 신제품 및 신사업의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이업종간의 경영정보와 기술노하우를 공유하여, 공동화사업개발 및 기술융합으로 공동 이익을 창출, 지역 경제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협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 이업종 교류가 주요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각 중소기업 유관기관지원기관에서는 '이업종 회원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등 이업종 회원을 위한 사업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간 교류도 적극 추진하여 전국지역 연합회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 교류회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활동도 하고 있다.

회원의 폭넓은 정보를 위하여 관내 대학 및 교수들과 산학협력을 체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과 연구, 기술정보 교류 등을 통한 대학과 산업체의 성장·발전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활동에도 적극 나서, 98년 일본 해외 바이어상담회를 개최 하는 등 회원사에게 국제 교류를 통한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업체간 바이어 발굴 및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일본, 대만, 한국 3개국이 년 1회 돌아가면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고 2010년은 대만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각국 이업종회원사간 친목도모와 수출상담 및 회원사 팀방을 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교류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이업종연합회 참가도 예상되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순수 민간 경제단체이다.



**전문시스템 구축은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한아름병원은 희생, 봉사, 집념이라는 모토아래 양. 한방재활, 요양병원으로 2009년도에 개원하였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다고 권지수 병원장은 전한다.

뜻하지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특히 뇌졸중(뇌출혈, 뇌경색)등 노인중풍환자의 기타 뇌질환, 척수 손상 및 척추질환 환자, 근골격계 손상 등 장애환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목표로 최적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양, 한방협진 진료를 통해 한차원 높은 전문적인 재활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성 내과질환(심장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내분비질환)등의 치료와 관리를 함께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뇌질환과 만성 내과질환에 특화된 전문 치료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보다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한아름병원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아름병원의 재활치료실은 수준 높은 최신 재활장비와 우수한 치료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직접방문하기에 편리한 위치와 넓은 재활치료 시설은 물론 쾌적한 내부 환경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2009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인천지역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인하대병원과는 지난해 7월 협력병원 협약을 맺고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아름병원 | 권지수 병원장

건강한 삶과 다시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환자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서며 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아름병원으로 언제나 남고 싶다는 것이 권 병원장의 바람이다. 부유한 마음가짐으로 의료를 행할 때,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권지수 원장, 그는 아름다운 마음과 봉사정신이 가족과 주위 분들에게 전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아름답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 만들어지리라 확신한다. 그래서 앞으로 긴 시간, 한아름병원 직원들은 모든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가족같이 여기고, 편안한 병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새해 아침 또 다짐해본다.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032-541-8575





#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

지난해 의료인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속에 두차례 실시된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 이 많은 의료인들의 요청에 따라 2011년 3월에 실시하게 된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PET-CT, MRI, 3D Angio CT 등 특수항목 뿐 아니라 남녀사망 10위 안에 드는 뇌혈관 질환, 폐암, 허혈성심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은 물론 여성 검진자를 위한 유방암, 갑상선암 항목을 추가하였고, 각 해당 진료과 교수가 직접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실시한 일요일 검진은 평일에 진료를 포기하면서 검진 받기 부담스럽고, 많은 대기시간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뤄왔던 원장님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원장님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직원 가족 감면율을 확대 적용하는 좋은 기회에 건강을 돌보시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검진 실시는 우리 인하대병원이 지역의와 함께 발전하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검진항목

유형	검사명	검사 해설
기본	Chest CT	폐의 횡단면을 투과한 X선의 강약 정도의 차이를 컴퓨터를 이용, 2,3차원의 영상을 재구성, 해부학적 구조와 병변의 유무, 크기, 기능변화, 압전이 여부
	Abdomen+Pelvis CT(Contrast)	간질환, 당뇨계질환, 위장질환, 췌장질환, 비장질환
	Duodenoscopy	식도·위·십이지장까지 내시경관을 삽입하여 염증성 질환, 출혈, 정맥류, 용종, 점막하근종, 궤양, 증양 등
	Total Colonoscopy	항문-총수돌기의 맹장 부위까지 내시경관을 삽입, 대장용종, 장결핵, 대장암, 궤양성 대장염, 크론씨병, 계실질환, 항문질환, 그 외 장염 등
		수면내시경(EGD+Colon 동시)
선택	PET-CT(Torso)	CT 영상을 밑그림으로 이용, 그 위에 생화학적인 PET 영상을 겹쳐 PET에서 발견된 병변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Brain+Angio MRI GD	대뇌 및 소뇌의 해부학적, 선천성 기형, 종양, 염종, 뇌경색, 뇌출혈, 종괴, 낭종, 허혈성 질환, 치매
	Breast U/S	고해상도 초음파 기기를 이용 섬유선종, 유방암, 농양, 낭종 등을 진단
	Thyroid U/S	고해상도 초음파 기기를 이용 양성결절, 악성결절, 미만성갑상선질환 등을 진단
	3D Angio Coronary CT	1회 촬영으로 64개의 영상을 얻어 이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 움직이는 심장(내부장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 심장혈관(관상동맥),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폐색전증 등의 진단

◆검진항목은 병원 사정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 검사일자: 2011년 3월 6일(일) 예정 08:00 ~ 13:00
- 예약기간: 2011년 2월 14일 ~ 2011년 2월 25일
- 접수처: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실 ☎Tel: 032-890-3500 / 080-339-2000 ☎Fax: 032-890-3999 / 032-890-3334
- 문의: 이동열 대리 ☎032-890-3302(010-7145-7119)
- PET 검사 선택 시, 휴일 동위원소 수급 이 불가하여 부득이 원장님께서 가능하신 평일(월-토) 08:00 ~ 09:00에 예약하여 드리겠습니다.
- PET-CT만 단독으로 검사를 원할시에는 정확한 판독을 위하여 Abdomen+Pelvis CT와 함께 검사하셔야 합니다.
- 유방 및 갑상선 초음파 검사 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Aspiration Biopsy를 추가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 검진 적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건강증진센터에서 평일 '개원의 검진'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검진 대상자들의 사정 및 본인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하대병원 박승림 의료원장,

### 2010 메디컬코리아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공로상 수상 ●

박승림 의료원장은 12월 27일 '2010 메디컬코리아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박승림 의료원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를 위한 의료기관 전 부문 JCI 획득 및 중국 청도 인민병원과 합작투자를 통한 국제진료센터 운영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한국국제의료협회 부회장 및 컨벤션 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인하대병원, 인천지역 최초 식약청 지정 <지역약품감시센터> 선정 ●●

지난 11월26일, 인하대병원은 인천지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하는 <지역약품감시센터>로 선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 지역의 주요 거점 병원에 지역약품감시센터를 지정하여 약물 유해반응에 대한 보고 및 평가를 수행 중이며, 2011년에는 지역약품감시센터를 전국적으로20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인천지역에서는 본원이 지정되어 연간 9,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약물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 2010년 협력의료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 ●●●

지난 12월 1일, 인하대병원은 인천 허버파크 호텔에서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의료원장을 비롯한 총 41개 협력의료기관의 병원장 및 진료과장 등 130여 명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인천광역시사회 김남호 회장을 비롯한 인천광역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의료원장, 협력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하대병원 박승림 의료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평가 인증 전략',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처', '인하대병원 지역약품감시센터'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팜투어> 실시 ●●●●

지난 11월 15일, 인하대병원은 베트남 의료진 23명을 대상으로 팜투어를 실시했으며, 12월 6일(월), 예는 우즈베키스탄 관광공사 알리셰리 차관을 비롯한 대한항공 티슈켄트 지점장을 비롯한 우즈베크 여행사 시장단으로 구성된 10여 명의 팜투어단이 본원을 방문했다. JCI 인증을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시스템과 건강검진프로그램, 사이버나이프 및 래피드야크 등의 최신 의료장비를 소개하며 인하대병원의 의료수준과 해외의료관광을 위한 준비상황을 선보였다.



##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 ●●●●●

인하대병원이 2011년 1월 1일부로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인하대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각종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인천 유일의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산재보험환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처리와 각종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인정받은 것이며, 특히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명성을 공인받은 의미가 있다. 인하대병원은 향후 인천 유일의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서 산재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활을 통해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으로 돌아가 신속히 임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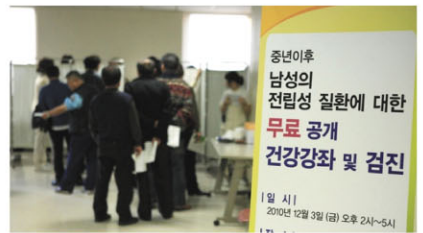
**2010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 2년 연속 1등급 획득**

지난 12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2010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201개 종합병원 중 인하대병원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으며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전문인력 구성여부 및 주상병 급성기 뇌졸중 과 경색성 뇌졸중을 대상으로 12개 과정지표(환자상태사정부분, 초기진단부분, 초기진료부분, 이차예방부분)를 가지고 이루어진 평가에서 인하대병원은 뇌졸중 환자 내원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진료로 우수한 진료결과를 도출하였기에 1등급을 받았다.



**중국 보험사 (MSH China)와 업무 계약 체결 및 팸투어 실시**

지난 11월 30일, 외국 보험사(MSH China)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방문단은 본원 주요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본원의 준비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11월 29일(월),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MSH China와 직불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성의 전립선질환 무료 공개강좌 및 건강검진 실시**

지난 12월 3일, 인하대병원은 중년이후 남성의 전립선질환에 대한 무료공개 건강강좌 및 검진을 실시했다. 배뇨증상표작성, 요속측정, 전립선암 혈액검사, 직장수지검사 등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많은 내원객들이 직접 검사에 참여하였으며 비뇨기과 윤상민 교수의 '전립선 비대증', 성도환 교수의 '전립선암'에 대한 강연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웅진군청에 연평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전달**

지난 12월 17일, 인하대병원은 연평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약 1200여 만원을 웅진군청(군수 조윤길)에 전달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2월 13일(월)부터 연평도 주민을 돕기 위해 [연평도 주민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의미 있는 성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해외연수의사 수료식 개최**

지난 12월 22일, 인하대병원에서 실시한 중국 청도 성양구 인민병원 의료진들의 의료연수를 마무리 하는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연수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되어 약 한달간 진행되었으며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 ICU(호흡기내과) 등에서 4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선진 의료기술 전수를 통한 청도 인민병원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본원 이미지 제고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 지난 11월 23일 에는 연변 제 2 인민병원 유경범 신경외과 의사가 약 두 달간의 의료연수를 마쳤다.

**2010년 자원봉사자 송년회 개최**

지난 12월 21일, 본원 3층 대강당에서 『2010년 자원봉사자 송년회』가 열렸다. 이번 송년회는 장기근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과 다과를 동반한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인하대병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다.



## 2010 환자 위로의 밤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

지난 12월 15일, <2010 환자 위로의 밤,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실시되었습니다. 40여 명의 칸타타 단원들은 짜임새 있는 단결력으로 하나된 목소리를 내며, 은혜를 받기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공연을 보러 온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정성과 봉사의 마음으로 준비해 온 이번 공연은 환자들에게 쾌유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병마와 싸우며 지쳐있던 심신을 달래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평화의 집> 방문하여 사랑의 선물 전달 ●●

지난 12월 23일,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임명관 과장님과 윤명관 기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연구수 선학동에 있는 <평화의 집>을 방문했다. <평화의 집>은 '중증지체장애아'들을 돌보는 곳으로, 영상의학과에서는 매년 방문해왔으며 미리 준비해간 생필품 전달 및 간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인하대병원 고운소리 자선공연단, 크리스마스 공연으로 환우 위로 ●●●

인하대병원 고운소리 자선공연단(단장 박광원)은 2010년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념하여 병원 강당에서 고운소리 공연대상 최다관객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노래, 댄스, 연주, 난타 등 다채로운 공연과 특히 이번 공연은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푸짐한 행운권 상품과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산타가 직접 선물을 전달해 주었으며 지루하고 답답한 병실생활에서 잠시나마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고, 자선공연단원들에게도 보람된 시간이었다.



## 인하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

지난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상담센터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인하대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QI 활동 대상 수상 ●●●●●

지난 11월 23일, 인하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QI 활동>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본 수상은 2008년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질 향상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QI 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있으며, 2010년 본원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장태영 교수, 대한안면성형 재건축회 초대 회장 취임 ●●●●●

지난 11월 13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안면성형 재건축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약 150여 명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기인으로 참석하였으며 본원 이비인후과 장태영 교수가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장태영 교수는 대한안면성형 재건축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안면성형 재건분야에 기여함은 물론 인하대병원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류정선 교수 -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상 수상 ●**

지난 11월 2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가 대한폐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상을 수상하였다. 류 정선 교수는 5년 생존가능성이 약 70%에 불과한 초기(1병기) 폐암환자에서 사망위험이 높은 군과 낮은 군을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 발굴에 대한 논문으로 우수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돈행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돈행 교수가 2010년 12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0 보건산업기술유공자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HT, Health technology) 개발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행사로써,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행사이다. 이돈행 교수는 국가지정 소화기질환 의료제품 유효성 평가 서비스센터를 유치하여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의료제품의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여 미래 국가동력 산업인 보건의료기술 개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인하대병원, 의료정보분야 발전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지난 12월 9일 인하대병원은 의료정보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위한 <퇴원손상심층조사>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기여한 바가 커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패 및 상장)을 수상했다. 또한 의료정보팀 정민주 과장은 <2010년 전염병관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문의 여성암센터 ☎ 890-2560  
▶홈페이지 www.inha.com ▶여성암센터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유방암 환우 송년회**  
지난 12월 17일 인천 주안 천년뷔페 웨딩홀에서 150명 정도의 유방암 환우분과 가족분들이 모여서 즐겁고 뜻깊은 송년파티를 가졌습니다.  
지역구마다 노래와 춤 등 숨은장기를 뽐냈으며, 특히 수술한지 10년



되신 분이 참석하여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2010년의 아쉬움과 2011년의 새희망을 촛불에 담아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 파랑새 정기총회 행사일정 ]**
- 일 시 : 2011년 2월10일 • 장 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내 용 : 파랑새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출
  - \* 시간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사동정

임원채용

소속: 임원실  
성명: 민병출  
발령사항: 경영부원장

임원위촉

소속: 임원실  
성명: 김석규  
발령사항: 비상근 고문

표창

공로직원  
진료협력실: 이동열

공로부서

Q팀: 문미혜 팀장 외  
보합심사: 최윤정 팀장 외  
질향상 유효행개념  
유추진 TF: 이돈행 교수 외

친절봉사직원

교육수련부: 이우진, 김영태  
병동간호 1팀: 박윤경  
병동간호 2팀: 차수영  
외래간호팀: 이승미  
특수간호팀: 임선영  
진단검사외과: 김권철  
노사협력팀: 황유석

친절봉사부서

신생아실: 오승은 수간호사 외

협력사 공로직원

(주)한진정보통신 (전산운영팀): 강보영

협력사 친절봉사직원

(주)씨큐어넷 (특수간호팀): 윤경순  
(주)신명파워 (외래간호팀): 강미영  
케이텍맨파워(주) (원무팀): 한선영  
성일아이비에스(주) (시설팀): 한순덕

진료실적 우수진료과

류마티스내과: 박원 외

진료실적 우수교수

핵의학과: 현인영

10-10-10 캠페인활동 우수부서

수익증대 - 진단검사의학과  
비용절감 - 전산운영팀  
서비스향상 - 의공공학팀

보직임명

소속: 특수간호팀  
성명: 최영애  
발령사항: 회복실 간호단위책임자

수습직원채용

소속: 병동간호1팀  
성명: 황보람, 안문규, 김혜림, 박성혜

병동간호2팀: 김은재, 김태웅, 정다혜, 조은영, 박유리, 이지영

특수간호팀: 백혜정, 김민정, 정원영, 구혜수  
외래간호팀: 고선아, 윤정진

전근

소속: 병동간호 2팀  
성명: 손은사  
발령사항: 병동간호 1팀  
특수간호팀: 고경빈  
병동간호 2팀  
병동간호 1팀: 조보연  
Q팀: 이호원  
간호부: 이호원  
원무팀: 한은정  
의료정보팀: 이정노  
원무팀

이달의 친절직원

●12월  
병동간호1팀(동 15병동): 김소희 간호사  
외래간호팀(신장센터): 김소영 간호사  
●1월  
신경외과: 정준호 교수

자원봉사자 모집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

- ① 만 60세 미만으로 주 1회(3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 ② 각종 교육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③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2. 봉사활동시간(평일)

- 오전 : 9시 ~ 12시 / 오후 : 1시 ~ 4시



3. 봉사자에 대한 예우

- ① 3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식권 지원
- ② 봉사당일 무료주차
- ③ 행사 참여 : आय회, 송년회, 간담회
- ④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 ⑤ 의료비 감면(6개월 이상 봉사자)
- ⑥ 자녀(중고생) 인하대병원 학생자원봉사활동 참여 우선 자격 부여

봉사활동 부서별 내용

활동부서	대 상	활동내용
소아청소년과	입원, 외래환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동화구연
외래안내	내원객	진료상담, 진료실, 검사실 위치안내, 동행안내
도서대여	입원환자, 보호자	무료도서대여, 반납, 정리
이미용 봉사	입원환자	이미용(병동방문)
호스피스	입원환자	세발, 간병, 목욕, 말벗
진료지원부서 (중앙공급실/수술실/세탁실)		진료재료 공급, 거즈나 붕대접기, 의료소모품 정리 환자가운 등 세탁물 정리

● 문의 : 병원 지하 2층 자원봉사실 담당 - 신소영 ☎032-890-2873



# Global INHA

이번 호에서는 Hemodialysis, 혈액투석 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대화편입니다.

Nurse: Could you tell me your weight in kilograms?

몇 킬로그램인지 몸무게를 말씀해주시겠어요?

Patient: I'm 55 kilos.

55킬로그램입니다.

Nurse: How many times do you have dialysis per week?

일주일에 몇 번 혈액투석을 하세요?

Patient: I usually have dialysis thrice a week.

보통 일주일에 3번 합니다.

Nurse: How many kilos do you lose after dialysis?

혈액투석 후에 몸무게가 얼마나 빠지셨나요?

Patient: I lose maybe around 3 and a half kilo a month.

한 달에 3.5킬로그램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Nurse: Do you have diabetes or hepatitis? Do you experience shortness of breath?

당뇨나, 간염이 있으세요? 숨이 가쁜진 않으신가요?

Patient: Yeah, sometimes I feel that.

아, 네 가끔 숨이 가쁠 때가 있어요.

Nurse: Do you have any other complains?

다른 불편한 점은 있으신가요?

Patient: No, I don't have any complains.

다른 건 없어요.

Nurse: Please tell me if you have any discomfort.

다른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Patient: OK, I will. Thanks.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lobal Inh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병원에서 쓰이는 영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병원 영어 회화가 있으시면, 원보의 엽서 또는 [inhapr@inha.com](mailto:inhapr@inha.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 원 | 고 | 모 | 집 ♣

원보 인하대병원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간단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E-mail : [inhapr@inha.com](mailto:inhapr@inha.com)

■보낼 곳 : 홍보팀

☎ 032-890-2603

## 독 자 엽 서

보 내 는 사 람

\_\_\_\_\_  
\_\_\_\_\_  
\_\_\_\_\_

□□□-□□□



받 는 사 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http://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홍보팀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 Quiz Quiz 퀴즈 퀴즈 제58회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1. 겨울철 낙상에 의한 골절에 관한 설명이다. 이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손목 골절은 비교적 연령이 적은 중, 장년층에서 흔하며 넘어질 때 손목을 짚으면서 발생한다.
  - ② 넘어져서 골절이 발생 하였다고 생각 될 때나 골절이 의심되는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의사나 응급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
  - ③ 척추골절은 영명이 부위로 넘어지면서 발생하며, 골절 발생 시 다른 골절에 비하여 사망률이 높다.
  - ④ 골절예방을 위하여 골다공증의 유무를 진단 받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
  
2. 인하대병원은 인천지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하는 <○○○○○센터>로 선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 지역의 주요 거점 병원에 ○○○○○센터를 지정하여 약물 유해반응에 대한 보고 및 평가를 수행 중이며, 2011년에는 ○○○○○센터를 전국적으로20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인천지역에서는 본원이 지정되어 연간 9,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약물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3.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한 4세대 레이저 장비 <○○○○>는 과거 레이저 장비의 제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하였으며, 거대전립선도 치료가 가능하면서 절제된 전립선 조직을 방광 내에서 분쇄하는 과정 없이 수술을 하게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을 낮춘다. 게다가 2세대 KTP레이저와 달리 조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거된 전립선조직의 조직검사가 가능하며, 수술 중 출혈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 동반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조차 비교적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Quiz 정답

1

2

3

## ♣ 제57회 QUIZ 정답

- ① 3
- ② 4
- ③ 파이프로스칸

## ♣ 당첨을 축하합니다

- 김미경 의료정보팀
- 주진희 자재팀
- 박종대 서울 마포구 상암동
- 김채은 인천 계양구 병방동
- 박종원 서울 강서구 화곡 2동





##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4)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 총괄 현황 | 2011년 1월 1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89명	962,168,298원	789,443,019원	

### ◎ 기부자 현황 | 2010년 11월 1일 ~ 2011년 1월 1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 고
10.11.19	한길수	10,000,000	인하대 의과대학 동문/코아에비인후과 주임점
10.12.10	허준호	1,000,000	제2기 건강문화CEO과정
10.12.15	전용선	10,000,000	인하대 의과대학 동문/승림에비인후과
10.12.30	김은숙	1,000,000	치과센터 (완납)



##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분만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2/10(목), 3/9(수) 오후 2시 ~ 4시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환자를 위한 영양교육	• 대장암 환자의 식사 관리 • 암환자의 전반적인 영양 관리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	3층 1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암환자를 위한 미술치료	• 암환자의 우울감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미술요법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 갤러리 전시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장소
2011. 01. 15(토) ~ 2011. 01. 30(일)	야생화 사진전	FLOMA (김효 외)	2층 갤러리
2011. 02. 02(수) ~ 2011. 02. 17(목)	다큐멘터리 사진전	박흥기	2층 갤러리
2011. 02. 17(목) ~ 2011. 03. 20(일)	강해연 개인전	강해연	2층 갤러리
2011. 01. 19(수) ~ 2011. 03. 09(수)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만화세상 만들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하 1층 문화광장

#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장내과 (☎2200)	이우형	*	고혈압, 관동맥질환, 고지혈증	월, 금		심장혈관센터 (☎2440~1)	신장센터 (☎ 2533)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클리닉과 병행	
	박금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월, 목	금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권 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수, 금	월, 화			송준호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대혁	*	부정맥, 심실,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수, 목	월, 수		신장이식클리닉	김문재	*		수			
	우성일	*	관동맥질환, 심혈관재술, 고혈압	화, 금	월, 수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수			
	신성희	*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월, 화	목, 금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수	목	오후진료 : 13:00~16:30 오전진료 : 03:30~12:00	
박상돈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화, 목, 금		송준호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화				
	일 반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수		주우철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월			
소화기내과 (☎2224)	김영수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월, 화, 목, 금		내시경센터 (☎2540~1)	혈액종양내과 (☎2219)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폐암센터	
	신용운	*	소화관질환, 위·대장질환	월, 수	수			이문희	*	종양학, 혈액학	화, 수, 목	월, 수		
	이돈형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금	수 (목)		
	김형길	*	소화관질환, 소화관암, 대장질환	수, 금	월			임주한		종양학, 혈액학	월	화, 목, 금	친자확인	
	권계숙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수, 목	화			장해정		종양학, 혈액학	목, 금	화, 목		
	이진우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화, 목	월, 화, 목			암센터 (☎2580)	김철수	*	혈액종양, 골수이식	화, 목		
	정 석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금	목				이문희	*	혈액종양, 골수이식	월		
	이정일		해외연수(2010. 8 ~ )						감염내과	정문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월, 목, 금	화
	방병욱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 금	수, 금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화	월, 수, 금	
	양병혁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김미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수, 금	월	
임희환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김용욱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류마티즘센터 (☎2210~1)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월, 화, 수, 목, 금				
정현정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권성렬		해외연수(2011. 1 ~ )					
홍기연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월, 목, 금	월, 수				
기성호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윤지열		관절염, 골다공증	화, 수	화, 목				
일 반						일 반			월, 수	화, 목, 금				
호흡기내과 (☎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화, 목 (금)	월, 수, 목, 금	( ) : 주별 진료	알레르기내과 (☎2216)	김철우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월, 목, 금	화, 목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월, 화 (수), 금	수, 목(1,3)	▶폐암센터		일 반			수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중앙, 만성폐질환	월 (화), (목)	(월), 화, 목			내과계일반 (☎2250)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월, 수, 목, 금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수), 목(4)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남해성		호흡기질환, 폐중앙, 만성폐질환	수, 금	(화), (금)		홍기천	*	혈관이식외과	화, 금	목				
폐암 내과 (☎3890)	이홍렬	*	폐중앙	금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곽승민	*	폐중앙	수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목), (화)	(월)	□여성암센터 △비만센터		
	류정선	*	폐중앙	화, 목	월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조재화	*	폐중앙	수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이현규	*	폐중앙	월	목		허윤석	*	소화기외과, 위	(화), (수)	화, 목			
	남해성		폐중앙	수, 금	화, 금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목	금			
흉부외과	김광호		폐중앙	화			최윤미	*	소아외과	(수), 금	월, 수			
	김정택		폐중앙	월	목		김장용		혈관내과	월, 수, 목, 금	월, 수, 금			
	윤용한		폐중앙	수	금		정인오		일반외과	금	목, (금)			
정신과	조성연		불안장애		화		이호길		일반외과	월, 수				
당뇨내분비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목), 금		□비만센터	흉부외과 (☎2280)	김광호	*	폐, 종격동, 기흉, 다한증	화(목), 목		▶폐암센터	
	남문석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화, 목	수	△여성암센터(갑상선조직검사)		백완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금	화		
	홍성빈	*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수, 목	월 (화), 수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목)	월, 목(목)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화, (수), 금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수(목)	수, 금(목)		
	이정진		당뇨, 내분비질환	금	월, 화									
비만 내분비내과 (☎3360, 2215)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신경외과 (☎2370)	박준은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김소현		성인비만, 대사증후군, 이형당뇨병		수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산부인과 (☎3360, 2215)	박지현		여성비만, 산후비만		월		신경외과 (☎2370)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월(목), 수(목)	월(목), 수(목)	◆뇌종양, 안면경련중, 삼차신경클리닉	
	허윤석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화				박현선	*	뇌동맥류, 경동맥협착,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수), 목	목(목)		
성형외과	최윤미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수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월, 수			
	김연수		재형형질술, 유행척추 유행척추교정술, 부형성술		수		윤승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금	화 (수), 금(목)			
소아	김순기	*	소아비만	금			가정의학과	정준호		뇌외상, 뇌혈관질환, 뇌종양, 뇌혈관기형, 뇌관류술, 뇌신경외과	금	화		
	김순기	*	소아비만	금				일 반			화	목		
청소년과	이지은	*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목	오후진료 : 14:00~16:00	신장내과 (☎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목	화	혈액투석진료	
	이연지	*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체중증진	월	화, 목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금	월, 수, 목		오후진료 : 16:30~16:30
가정의학과	일 반				금		송준호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수	월, 목, 금	오전진료 : 08:30~10:30		
	일 반				금		주우철		신장질환	금	수			





JCI

##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

1193개의 국제표준 안전시스템을  
인정 받은 병원, 인하대병원이  
JCI 인증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 인하대병원,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CI 인증 획득!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는 의료기관의 평가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기구입니다. 1193개의 평가항목을 통과한 JCI 인증 획득은 국제적인 표준에 부응하는 진료 시스템을 갖춘 안전한 병원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안전시스템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펼쳐나아가겠습니다.